

南北問題에 대한 再考

- 東南아세아를 中心으로 -

金 泳 國*

- | | |
|----------------------|---------------|
| I. 序 言 | IV. 農業開發의 問題點 |
| II. 南北問題 接近에 있어서의 모순 | V. 漁業開發의 問題點 |
| III. 工業化論의 재음미 | VI. 結 言 |

I. 序 言

第2次世界大戰이 끝나고 植民地解放과 더불어 經濟的 獨立을 성취하려고 하는 開發途上國들의 努力과 要求는 經濟的 民族主義의 高潮에 발맞추어 그 強度는 더 해가고 있다. 또한 國際的인 經濟, 政治情勢의 構造的 變化는 南北問題를 世界가 당면하고 있는 課題중에서 가장 중요한 課題로 인식하게끔 하였다. 즉 南北問題는 2次大戰後의 初期段階에 있어서 東西陣營對立의 一環으로서 東西援助競爭이라는 性格을 강하게 풍겼으나, 60年代 이후부터는 新生 開發途上國의 政治的, 經濟的 自覺을 基調로하여 南北간의 經濟的 隔差시정을 要求하는 南北간의 對立이라는 새로운 樣相으로 변모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1960年代의 「UN開發의 10年」은 開發途上國으로서 만족스럽지 못한 結果를 낳았다. 그것은 開發途上國側의 所得水準向上, 生活水準改善에 있어서 상당한 進展을 보았으나 南北間의 所得隔差는 좁혀지지 않았던 데에 기인하였다. 1970年代의 「第2次 UN開發의 10年」도 두차례에 걸친 石油波動과 國際通貨體制의 混亂에 影響을 받아 世界經濟는 인플레이와 停滯에 빠져 南北問題는 큰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開發途上國側의 平均成長率은 60年代에 비해 떨어졌으며 開發途上國側은 先進諸國의 援助가 不足하다고 비난하게 되었고, 반면 先進諸國은 開發途上國側의 努力을 促求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60年代와 70年代에 걸친 經濟發展의 結果 開發途上國중에서도 中進國으로 도약을 한 나라와 石油輸出國그루우프가 형성되어 利害가 서로 엇갈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南北問題는 人類가 처해있는 時代的 課題이면서도 과연 얼마만한 共通的 理解가 南北問題에 있어서 이루어졌으며, 南北問題에 대한 効果的인 對策이 얼마나 강구되었던가 하는 데에는 많은 疑問이 제기되는 것이다. 첫째는 여태까지의 開發理論이 開發途上國에 적합하였는가 또

* 本研究所 研究員, 檀國大 商經大 副教授

UN이 제시한 開發目標은 타당하였는가 하는 開發戰略上的 問題가 제기된다. 둘째로 南北간의 意圖가 自己中心의 으로 발로됨으로써 南北問題가 더욱 어려운 局面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않는가 하는 意識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南北問題에서 야기되는 이와 같은 問題意識이 東南아세아 諸國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에 範圍를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南北問題 接近上的 問題點

1. 計量的 接近

오늘날 開發經濟學(development economics)이라고 불리우는 經濟學의 한 分野가 있는 것은 어떤 時代的 課題가 있으므로 해서인가? 開發經濟學이 經濟學의 한 分野로서 정착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第2次大戰後 獨立한 새로운 獨立國, 그리고 大戰前부터의 獨立國이었으나 非西歐系의 後進國들로서 構成되는 貧國의 經濟發展을 先進國과의 關係에서 研究하는 分野가 바로 開發經濟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0世紀에 있어서의 貧國의 經濟가 人類歷史上 時代的 特殊性을 제기하고 있고, 經濟開發이라는 普遍妥當性 있는 研究와는 다른 時代的 要請이 있다는 데에서 開發經濟學이 있을 수 있는 理由를 찾는 것이다. 그 特殊性이란 貧國의 經濟開發은 南北問題라고 불리우는 人類가 당면하고 있는 時代的 課題라는 意識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後進國 혹은 未開發國이라고도 불린 開發途上國은 순수한 經濟的 尺度로 비교할 때 先進國과의 差異는 量的인 것으로 표현된다. 一般적으로 1人당 年間 國民所得의 美貨 달러 換算額으로서 계량된 經濟量으로 開發의 정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國民所得이나 國民總生産이란 經濟總量은 2次大戰後의 經濟復興政策이나 經濟成長政策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 큰 役割은 하였으나 南北問題라는 時代的 課題를 意識한다는 觀點에서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國民所得 關連指標는 經濟學의 다른 概念들과 마찬가지로 先進諸國의 制度와 生活를 前提로 하여 발달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事情이 전혀 다른 開發途上國의 經濟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過誤를 범할 우려성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東南아세아와 같이 自給自足의 經濟生活部門이 많은 데에서는 더 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또한 國民所得이나 國民總生産과 같은 經濟尺度는 先進國 經濟構造와 開發途上國 經濟構造에 있어서 서로 다른 意味를 갖는다는 것 외에도 각각의 通貨單位로 표시된 國民所得을 美貨 달러로 표시하여 換算해서 비교한다는 것에도 큰 問題가 내포되고 있는 것이다. 國民所得이나 國民總生産과 같은 經濟總量的인 指標가 여러가지 問題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指標의 開發이 잘 안되고 있는 實情을 勘察할 때 最近에 開發된 所得分配나 財產所有의 不平等을 나타내는 社會指標나 文盲率, 幼兒死亡率 등을 나타내는 文化的 指標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住民의 開發

開發經濟學이 資源의 利用, 所得分野, 雇用, 資本蓄積, 技術蓄積, 教育등으로 여러가지 開發類型을 만들고 있으나 現實的으로는 開發途上國은 劃一的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多樣化하고 있는 것이 實情이다. 이러한 樣相에 처해서 만일 開發經濟學이 단순히 南北간의 所得隔差를 南北問題의 基調로 삼는다고 한다면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過誤는 國家를 均質的인 經濟開發의 主体로 보는 데에서 온다고 보는 것이다. 經濟開發의 主体는 質的으로 서로 다른 個個人인 것이고 社會며 그리고 各 個人의 構成체로서의 國家인 것이다. 따라서 南北問題에 있어서의 關心은 각 個人 즉 住民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다. 흔히 東南아세아諸國의 大部分 住民은 무지하고 나태하기 때문에 勞動力으로 적당하지 않다던가, 賃金を 조정 함으로써는 勞動意欲을 고취시키기 어렵다던가, 生活에 필요한 만큼만 벌이를 한다던가 하는 見解가 있었다. 이런 住民이 開發途上國들 그중에서 東南아세아 諸國의 住民의 一部를 構成하였고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過去 60年代와 70年代를 통해 東南아세아 諸國이 착실하게 經濟發展을 이룩하였다는 것은 個個人이 經濟開發의 主体로서 經濟行爲를 영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貧農層의 開發에 적극 참여한다는 開發戰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工業化는 近代的인 工業部門의 生産性を 높이기는 했으나 반면 都市에 유입한 勞動者의 大多數는 非組織部門의 低所得層을 형성하여 貧富의 隔差를 擴大하였고, 農村에 있어서도 綠色革命은 富農과 貧農의 相對的 隔差만을 넓히는 結果를 낳았다. 이와 같이 大衆의 一部는 發展의 테두리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FAO의 第4次 世界食糧調査에 따르면 2000年경에는 開發途上國의 總人口는 48億9千萬名이 되어 世界總人口 62億5千萬名의 약 78%를 점하게 된다. 開發途上國의 農業人口는 이때 21億으로서 開發途上國 總人口의 약 43%가 되어 1990年을 경계로 하여 農業人口가 半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¹⁾ 이 豫測은 물론 서로 다른 特殊한 事情을 안고 있는 開發途上國을 網羅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開發途上國 또는 모든 開發地域이 다 이와 같은 傾向을 띠지는 않을 것이나 東南아세아에 있어서도 工業化의 進展에 따라 産業別 人口構成上 變動이 있을 수 있다는 豫測은 可能하다고 본다.

위의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東南아세아 諸國에 있어서는 貧農層을 포함한 大衆을 적극적으로 經濟開發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開發戰略이 중요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이들의 人間으로서의 基本的慾求를 충족시키는 戰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²⁾

1) FAO, The Fourth World Food Survey, Rome, 1977.

2) H. Myint, An Interpretation of Economic Backwardness, Oxford Economic Papers, June, 1954.

Willy Brandt, North-South: A Program for Survival, MIT Press, 1980.

Ⅲ. 工業化論의 再吟味

1970年代에 아세아 諸國은 광복할만한 經濟發展을 이룩했고 ASEAN 4 國(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선 ASEAN 4 國의 工業化를 概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表-1>에서 알 수 있듯이 1970年代에 있어서의 製造業과 工業의 成長率은

工業化 諸 指 標

<表-1>

區 分	GDP에 占하는 比率 (%)						經濟活動人口에 占하는 工業의 比率 (%)		1人當 GNP (1978年 \$)	年平均成長率 (%)			
	製造業		工業		製造業					GDP		工業	
	1960~1970	1970~1978	1960	1978	1960	1978	1960	1978	1960~1970	1970~1978	1960~1970	1970~1978	
	日 本	11.0	6.2	45	34	34	29	30	39	7,280	10.5	5.0	11.9
싱가포르	13.0	9.2	35	12	12	26	23	38	3,290	8.8	8.5	12.6	8.5
홍콩	...	5.6	31	25	25	25	52	57	3,040	10.0	8.2	...	6.2
대만	17.3	13.2	48	22	22	38	11	37	1,400	9.2	8.0	16.4	12.9
한국	17.2	18.3	36	12	12	24	9	37	1,160	8.5	9.7	17.2	16.5
필리핀	6.7	6.8	35	20	20	25	15	16	510	5.1	6.3	6.0	8.6
태국	11.0	11.5	27	13	13	18	4	8	490	8.2	7.6	11.7	10.2
말레이시아	...	12.3	32	9	9	17	12	16	1,090	6.5	7.8	...	9.6
인도네시아	3.3	12.4	33	8	8	9	8	11	360	3.5	7.8	5.0	11.2
인도	4.8	4.6	26	14	14	17	11	11	180	3.6	3.7	5.5	4.5
파키스탄	9.4	3.5	24	12	12	16	18	19	230	6.7	4.4	10.0	4.8
스리랑카	6.3	1.2	31	17	17	23	14	15	190	4.6	3.4	6.7	3.0
버마	3.3	4.2	13	8	8	10	11	20	150	2.6	4.0	2.8	4.5
방구라데쉬	6.6	5.3	13	6	6	8	4	7	90	3.6	2.9	7.9	5.9

註: 工業은 鎭業, 製造業, 建設業, 電氣, 가스, 水道 포함.

資料: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0, August, 1980.

GDP成長率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GDP에 占하는 製造業의 比率도 1960년에 비해 1978년에 모두 增加하여 工業化率을 높이고 있다. 工業化패턴은 消費財의 輸入代替工業化로부터 出發하였고 지금은 中間財의 輸入代替工業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全體的으로 보면

1次産品 輸出國 또는 農業國의 立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輸出依存度는 NICs에 비하면 相對的으로 낮고, 輸出에서 접하는 工業製品의 比率도 낮았으나 1970年代에 들어오면서 急増하고 있다. 이 밖에 ASEAN 4國의 共通된 傾向은 1次産品の 加工 및 輸出의 向上, 中間財 資本財의 輸入代替를 위한 重化學工業化이다.³⁾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SEAN 4國은 經濟成長이 輸出에 依存하는 比率이 70年代에 急増하였고 實質成長率은 60年代에 비해 70年代가 높아지고 있다. 또 輸出은 1次産品の 比重이 낮아지는 반면 纖維, 衣類, 機械類 등 工業製品의 比重이 增加하고 있고 특히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3國은 70年代 後半에 이르러서는 勞動集約的 製品을 中心으로 한 商品輸出이 伸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資本形成率과 國內總貯蓄比率의 上昇 그리고 技術移轉의 充實, 低賃金 등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보고 80年代에도 ASEAN 4國의 工業化는 지속된다고 보는 側面도 있다.⁴⁾ 요약하면 ASEAN 4國은 70年代에 괄목할 만한 工業化를 이룩하였고 80年代도 이 傾向은 계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樂觀的으로 評議된 ASEAN 4國의 工業化의 實像이 어떤가를 비추어보면서 工業化의 意味를 음미하고자 한다. ASEAN 4國은 工業化가 進進되어 國民의 總生産과 所得이 增加하였으나 所得分配의 심한 不平等化로 인하여 絶對貧困者를 포함하여 低所得階層이 形成되었다 <表-2참조>.

<表-2>

1976 年度 絶對貧困者 比率

단위: 百萬名

國 名	總 人 口	絶對貧困者	對人口比 (%)
인도네시아	135.2	68.4	50.6
말레이시아	12.7	1.3	10.2
필 리 핀	43.3	6.9	15.9
태 국	43.0	11.6	26.9
버 어 마	30.8	25.3	82.1
싱 가 포 르	2.3	0.1	4.3

註: 絶對貧困者는 1人당所得이 當해국에서의 最低生活必需品 確保에 必要한 水準에 도달하지 못하는 階層
 資料: U.N. 編, 日本ESCAP 訳, 「アジア太平洋經濟社会年報, 1980」, 原書房, 1982, p. 142.

3) 「1980年代に向かうアジアの工業化」, 『アジアトレンド』, 第8号, 아시아經濟研究所.

4) 安場保吉, 「ASEAN의 工業化と日本の対応」, 関口末夫編, 『日本の産業調整』, 日本經濟新聞社, 1981.

이러한 現象은 過度期的 現象으로 체념할 수도 있으나 所得分配의 不平等化가 왜 發生하였는 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權力層의 잘못된 資源配分の 結果 農·工業 간의 補完關係가 均衡을 잃게되어 農民의 低所得化 프롤레타리아화를 초래하였고 이들 農村人口가 都市로 집중하여 슬럼街를 형성하게 되었다. 필리핀의 한 保稅加工區에 대한 調査에 따르면,⁵⁾ 「保稅加工區는 있는 者를 더욱 富하게 하고 가난한 階級을 더욱 가난하게 하는 制度이고, 全体的으로 보아서 工業化는 그것을 成就할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좀 지나친 表現일진 모르지만 <表-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나 태국의 絶對貧困者의 對總人口比率이 높은 것은 工業化의 어두운 斷面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도 觀瞻을 것이다.

開發途上國의 工業化의 查 目的이 방대한 貧困層의 所得水準을 끌어 올리는 데 있다고 본다면 東南아세아의 경우는 너무나 現實과 동 떨어진 것이다. 工業開發이 都市에 집중된다 든가 製造品이 貧困層의 基本的 必要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든가 資本集約的 技術의 채택으로 인하여 所得分配의 度가 더욱 不平等化 된다 든가 한다면 工業化의 查 뜻은 재음미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東南아세아에 있어서의 工業化의 基本的 課題는 農業과 工業의 補完 및 農村工業의 振興, 地域간의 隔差解消등이 이루어져 넓은 意味의 社會的 近代化가 이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IV. 農業開發의 問題點

南北問題에서 食糧問題는 가장 절실한 基本的인 人間의 必要條件이다. 1.2次 UN의 開發10年의 經驗을 통해 開發途上國의 成長과 安定의 條件은 質과 量面에서 充分한 食糧供給이 확보되었느냐에 달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農業의 成長은 增産인 것이고 安定은 農業의 適正價格을 유지하여 需給均衡을 安定하게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基本的인 命題 외에도 開發途上國의 人口增加에 따르는 農業開發의 重要性은 加重된다. 食糧이 不足한 開發途上國人口가 世界人口에 접하는 比率은 60年의 68.3%에서 70年의 71.1%로 增加하였고, 80년에는 75.0%로 다시 增加하였으며 2000년에는 79.4%로 증가할 것이라고 豫測되고 있다. 그중 아세아의 開發途上國(中共 등 共產圈 포함)의 人口는 2000년에 世界人口의 60%에 달할 것이라고 豫測되어 아세아의 食糧問題의 重要性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人口增加와 所得水準의 向上을 고려할 때, 開發途上國은 食糧에 대한 需要의 所得彈性이 높기 때문에 開發途上國의 食糧需要는 年 3.6%~4%의 比率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需要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러지 않아도 質·量 공히 南北간에 隔差가 있는 世界의 食糧需給은 北의 剩餘增大과 南의 不足增大 現象이 豫測되는 것이다. 營養水準面에서 볼 때

5) 鶴見良行著, 「アジアを知るために」, 筑摩書房, 1981.

에도 ASEAN 4國은 保健上 必要水準을 약간 상회하고는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年 3.6%~4%의 食糧供給增加를 지속하지 못하면 다시 水準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6) 이렇게 볼 때 農業開發의 必然性은 클로즈업 된다.

그러나 이 必要性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開發途上國은 農業開發에 힘을 경주하였으나 開發技術과 自然과의 融和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하는 問題가 제기된다. 東南아세아의 開發途上國은 耕地의 대부분이 天水依存의 非灌溉耕地이기 때문에 各地의 自然條件에 맞추어서 食糧(주로 쌀 在來品種을 肥料나 農藥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여 왔다. 이들 在來品種의 增産率은 年 약 3%로서 年率 2.4~3%의 人口增加를 감당하기는 벅찬 것이다. 7)

1960年代에 耐肥性있는 多収穫品種이 등장하였고 이 새로운 品種은 在來品種 보다 많은 収穫을 얻을 수가 있어서 가히 農業技術革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多収穫品種의 보급에 따라 많은 問題點이 야기되었다. 그 주된 것은 첫째 化學肥料 農業의 보급을 可能케 하는 水利施設이 中心이 되는 生産基盤이고, 둘째는 年産物과 生産資材의 貯藏 輸送施設과 價格安定機構 등의 流通基盤이며 끝으로 農地分配制度 農業組織등의 制度基盤이다. 이들 여러 條件들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앞에서 본 農業技術革命은 東南아세아地域에서 食糧需給이 원활하였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綠色革命의 經驗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앞에서 본 生産基盤에 포함되는 技術開發에 있어서 새로 開發된 近代的 農業技術이 얼마나 自然과 融合되었느냐 하는 問題인 것이다. 이러한 問題를 의식하면서 두가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化學肥料를 사용하는 경우 化學肥料는 土壤中の 窒素가 媒介체가 되어 作物에 흡수되기 때문에 地力(특히 窒素成分)은 감퇴하게 된다. 따라서 化學肥料는 施肥할 수록 地力を 보충하지 않는 限 地력은 약해진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 地력을 유지하고 배양하기 위해서는 自然의 生態體系를 破壞함이 없이 自然의 循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化學肥料施肥에 알맞는 有機質肥料의 투입이 필요한 것이다. 즉 오래동안 肥料를 사용하지 않고 傳統的 農業을 영위해 온 地域에서 施肥에 의한 近代的 農業技術을 導入하는 경우에는, 地力の 유지배양이 增産을 安定化하는 데 절대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病虫害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近代的 農業技術에 의한 綠色革命은 多収穫品種에 의한 密植多肥의 方式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農藥의 투입을 많이 요구하게 된다. 이 方式은 適切한 用法에 숙달하지 않으면 在來의 生態條件을 破壞하여 종래의 栽培方法에서는 볼 수 없었던 病虫害가 爆發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 더욱이 集約的栽培의 경우 病虫害의 發生은 収穫에 막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耐病虫性品種이 다시 개발되고 몇年後에는 또다시 새로운 生態의 病虫害가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耐病虫性品種의 開發과 病虫害의 새로운 生態型的 發生과의 부단한 惡循環이 계속되는 것이다. 食糧作物의 增産自給을 달

6) 穴戶壽雄編, 「まちがいだらけの南北問題」, 東洋經濟, 1982. p.167.

7) 上掲書, p.160.

성하려면 灌溉施設의 擴充 耕地擴大에 못지않게 病蟲害對策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技術과 自然의 不協和는 綠色革命이라는 近代農業技術의 나아갈바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自然속에서 生活하고 있는 人類의 生活向上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自然의 機能과 매카니즘을 활용하여 自然과의 融和를 더욱 굳게하는 生産技術을 개발하는 데에 近代農業의 使命이 있는 것이지 自然과의 融和를 강제로 破壞하면서 까지 革新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

V. 漁業開發의 問題點

漁業開發도 다른 分野의 援助와 마찬가지로 世界銀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多國間 援助方式과 個別先進國이 開發途上國에 直接 실시하는 2國間 援助方式이 있다. 이들 두가지 援助方式은 援助의 指導理念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즉 多國間 援助方式은 原則적으로 두가지의 指導理念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그 하나는 人類가 永遠히 利用할 수 있도록 再生産이 可能한 水産資源의 保護이고 두번째는 先進諸國에서 開發된 漁業養殖技術을 開發途上國에 技術轉移를 한다는 것이다. 반면 2國間 援助方式은 援助國과 被援助國間간의 合意에 의해서 援助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一貫된 指導理念이 없는 것이 特色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방식에 의해서 開發途上國에 대한 漁業開發은 행해지고 있으나, 漁業構造나 漁業制度 등의 南北간의 차이에서 생기는 援助上의 모순이나 또는 開發途上國의 漁業部門의 下部構造未備에서 야기되는 試行錯誤가 빈번히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어떤 試行錯誤가 발생하는 가를 검토함으로써 漁業部門의 開發에서 비롯되는 問題點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指導理念의 適用에 있어서 야기되는 問題가 있다. 즉 水産資源의 保護라는 指導理念에서 비롯되는 援助內容에서 社會的 配慮가 缺如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日本을 除外한 기타 先進國은 담배질의 대부분을 畜産物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水産資源 濫獲의 징후가 있을 때 漁獲을 抑制하더라도 消費者는 큰 영향을 입받는다. 또한 先進國의 漁業은 통상 企業化한 漁業이기 때문에 漁業抑制는 그리 큰 問題가 되지 않으나, 東南아세아와 같이 零細 沿岸漁業이 主流를 이루고 있는 데에서는 水産資源의 保護를 위해서 漁獲을 抑制할 경우 零細漁民들은 收入源이 없어지는 동시에 一般消費者들은 값싼 蛋白質源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漁業構造上에서 오는 모순이다. 日本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타 先進國의 漁業構造는 企業漁業이라는 單一構造이기 때문에 企業化漁業의 經驗은 豊富하다. 그러기 때문에 東南아세아 開發途上國에 대한 援助도 자연히 企業漁業에 치중하게 되었고 東南아세아에서 主流를 이루고 있는 沿岸漁業에 대한 援助는 등한시 되어 왔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開發途上國의 漁業制度未備가 開發途上國 자신의 健全한 漁業發展

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東南아세아에서는 植民地時代に 제정된 漁業法이 별다른 수정 없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水産行政上 필요로 하는 漁業財政收入의 源泉으로써 또 단순히 水産資源保護를 目的으로 하여 漁業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다. 태국이나 필리핀의 漁業法은 전형적인 것으로서 漁業許可 漁船登録 漁具登録이 毎年 일제히 更新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許可 登録稅를 徵收토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手續은 新規나 變更事項이 아닌 한 필요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毎年 일제히 更新함으로써 漁業財政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도 漁獲物이 魚市場을 통해서 販賣될 때 販賣額의 7%를 漁業稅로 徵收하고 있다. 8)

위에 본 바와 같이 漁業이 漁業稅 徵收의 対象처럼 制度가 되어 있어서는 건전한 漁業의 發展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네째로 開發途上國의 漁業發展을 저해하고 있는 또 하나의 要因은 漁業下部構造의 未備이다. 특히 東南아세아諸國은 대부분 漁港施設 水産加工工場 製水冷凍工場 등 漁業下部構造가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南아세아에서는 실정에 맞지 않게 近代의 大型漁船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입된 大型漁船이 遊休化하는 예가 많은 것이다. 漁業發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漁業下部構造의 整備가 前提條件이 된다는 것은 日本의 예를 들지 않아도 명확한 것이다.

다섯째로는 援助의 浪費를 들 수가 있다. 漁業開發援助에는 國際的인 여러 機關이나 先進各國의 機關을 통한 有償援助와 先進各國에서 행하고 있는 無償援助 등이 있다. 그리고 援助는 被援助國이 援助國 내지는 援助機關에의 要請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原則이나 예외적으로 援助側에서 援助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援助內容이나 援助效果에 관한 兩側의 合意가 이루어진 연후에 프로젝트가 실행에 옮겨지기 때문에 形式上으로는 漁業開發에 상당한 效果가 있음직 하다. 그러나 現實적으로는 漁業開發援助의 많은 部分이 實效를 견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理由는 첫째 援助하는 측에서의 一方的인 期待에 의하여 발생하는 浪費가 있고 두번째로는 被援助側의 要請內容의 잘못으로 연유하는 浪費이다. 이 경우는 被援助 當해國의 高官이 自國의 漁民들 生活向上에 별 도움이 안되는 프로젝트를 自身의 榮達을 念頭에 두고 要請할 때 발생하게 된다. 세번째 理由는 先進國의 無償援助에서 발생하는 浪費이다. OECD의 開發援助委員會의 권고도 있고 해서 先進國의 漁業開發에 대한 無償援助의 規模가 커지고 있다. 통상 無償援助는 漁船이나 엔진 등이 접하는 率이 많다. 이들 漁船이 실제로 被援助 當사國에서 필요로 하는 종류의 배냐하는 것이 問題가 되고, 被援助國의 立場에서는 인수한 배의 維持運航費를 부담하기 어려울 때는 이 배는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9)

8) 上掲書, p.187.

9) 援助浪費의 東南아세아事例는 다음 參照. 上掲書, pp.189~200.

이와 같이 漁業開發에 있어서의 問題點은 援助를 하는 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지만 援助를 받는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VI. 結 言

앞에서 時代的 課題라고 할 수 있는 南北問題를 주로 東南아세아地域을 중심으로 하여 간단히 재음미하여 보았다. 南北問題는 第2次 世界大戰후 많은 努力이 경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先進國이 開發途上國에 援助를 하고 南北간의 所得隔差를 좁힌다는 凶式은 이제 아무런 効力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西歐的 經濟開發의 여러 概念은 素地가 판이한 東南아세아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가 하는 기초적인 疑問으로부터 援助側의 獨善과 誤解 그리고 被援助側의 錯誤와 權力의 腐敗 등에 이르기까지 南北問題는 더한층 問題의 심각성을 노정하고 있다. 그리고 東南아세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開發途上國은 아직도 貧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現實을 直視할 때 앞에서 고찰한 바 있는 여러가지 問題點들을 시정토록 노력하는 것이 東南아세아 諸國의 당면 課題이긴 하나, 그 보다도 80年代에 새롭게 展開될 南北問題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対応할 수 있는 經濟力을 하루 속히 배양하여야 한다는 命題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80年代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南北問題는 두가지로 압축하여 생각할 수 있다. 多極化하는 世界政治經濟構造와 第3世界의 分化現象에 따르는 南北構造의 再編成과정에서 先進國側은 相互依存을 호소하고 開發途上國側은 集團의 自助努力을 표방하여 新國際經濟秩序(NIEO) 運動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核戰爭이나 에너지 危機 그리고 食糧과 環境汚染危機를 피하고 科學技術의 發達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先進國간의 相互依存 뿐만이 아니라 南北간의 協力を 바탕으로 한 汎世界的 相互依存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 相互依存의 內容은 ① 世界에 있어서의 所得不平等의 減少, ② 戰爭 에너지 食糧 등 安全保障에 관계되는 危機管理 ③ 相互依存管理에 있어서의 民主主義的인 강력한 리더쉽 확립 ④ 支配·從屬關係가 아닌 國際協力 등을 생각할 수가 있다.

두번째로 新國際經濟秩序 問題이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疑問 그리고 先進國이 안고 있는 公害 人間疎外 浪費 등의 심각한 諸問題에 대한 두려움으로 第3世界는 先進國을 目標로 해서 그 뒤를 쫓던 路線을 바꾸고 또 다른 未來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第3世界가 또 다른 未來를 實現하려면 무엇보다도 主体性을 확립하고 自己들의 理想을 명확히 하여 外部로부터 강제된 이데올로기나 科學技術에만 依存하지 않고 스스로의 開發理論을 창출하려는 努力이 진제되

南北問題에 대한 再考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未來에 대한 생각이 南北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一方的인 否定은 人類의 共存이란 遠大한 理想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호 尊重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國際秩序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